

궁물떡볶이

궁금해? 물어봐!

내 마음과 하루를 남기는 8주 질문일기장



궁금한 걸 물어봐 → 궁물

떠오른 질문도, 그냥 남기고 싶은 하루도 차곡차곡.

학교 _____

학년 / 반 ____ 학년 ____ 반

이 공책의 주인 _____

기록한 기간 202__년 __월 __일 ~ __월 __일 (8주의 여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닿는 곳

스스로 묻고 함께 배우는 세종 어린이의 질문일기

매일 아침, 나에게 작은 물음표 하나를 선물해 보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발견하고,
마음속에서 보글보글 솟아나는 호기심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 뼘 더 훌쩍 자라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공책은 정답을 채우는 시험지가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생각과 소중한 마음을 차곡차곡 담아내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보물창고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좋아요.
세종의 모든 어린이가 스스로 묻고 당당하게 표현하며
저마다의 아름다운 빛깔로 빛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 미 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궁물떡볶이

궁금해? 물어봐!

내 마음과 하루를 남기는 8주 질문일기장



이 공책을 기록하는 어린이

학 교 : _____

학년 / 반 : _____ 학년 _____ 반

이 름 : _____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궁물떡볶이》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 공책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소중히 가꾸는 특별한 질문일기장입니다.



‘궁물’이란 무슨 뜻일까요?

떡볶이 국물이 보글보글 끓듯, 우리 마음속 호기심도 보글보글 솟아나요.
‘궁금한 걸 물어봐!’를 줄여서 다정하게 ‘궁물’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국물처럼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나는 나만의 질문을 찾아가 보세요.

좌우 펼침면으로 하루를 완성해요

- 왼쪽 면 (나의 질문일기 & 오늘의 마음 단무지):
상단 넉넉한 공간에 하루 일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아래 노란 단무지 곁에 오늘 내 마음의 맛을 짧게 남겨요.
- 오른쪽 면 (읽을거리 & 궁물 질문 기록터):
선생님 아침편지, 신문, 생활동화, 명작 동시를 읽고
떠오른 나만의 궁금증을 ‘궁물’ 자리에 적어 보아요.

《궁물떡볶이》를 맛있게 즐기는 4가지 방법

1. 정답이 없어요: 생각이 머무는 곳에 자유롭게 쓰세요.
2. 그림도 좋아요: 낙서, 만화, 마인드맵도 멋진 기록이에요.
3. 생각이 머뭇거릴 땐: 책을 180도 돌려 아래쪽 힌트를 보세요.
4. 나만의 속도로: 바쁜 날은 단무지 한 줄만 써도 충분해요.

8주 동안 나를 만나는 시간

하루하루 쌓인 질문과 일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보물책이 됩니다.
준비되었나요? 이제 첫 번째 장을 힘차게 넘겨 보아요!

질문의 세 가지 맛 알아보기

궁물 질문에는 난이도가 아닌, 서로 다른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순한맛 · 콕콕 찾기 (사실적 질문)

눈에 보이는 사실을 콕! 집어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단서를 찾아보아요.



보통맛 · 곰곰 짐작 (추론적 질문)

드러나지 않은 뜻과 까닭을 곰곰이 상상해 보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숨은 이야기를 짐작해요.



매운맛 · 내 생각 톡톡 (감상적 질문)

'나라면 어땠을까?' 내 생각과 마음의 양념을 톡톡 뿌려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느낌을 나누고 생각을 보태는 질문이에요.

8주간의 질문 여행 지도 (Roadmap)

1주차	나의 마음	내 안의 다양한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
2주차	함께 사는 우리	친구, 가족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
3주차	익숙한 하루	늘 보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4주차	미래의 나	나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시간
5주차	자연과 생명	작은 생명들과 계절을 느끼는 시간
6주차	배움과 호기심	새로운 지식을 만나고 질문을 던지는 시간
7주차	사회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
8주차	기억과 이어짐	질문의 열매를 맺고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시간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월요일 아침, 이불 속에서

안녕, 애들아! 주말 잘 보내고 교실에서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5분만 더 자고 싶다...' 하며 이불을 꼭 쥐었던 친구 있니? 사실 선생님도 어릴 때 월요일 아침이면 늘 그랬단다.

몸은 학교에 왔는데 마음은 아직 방에 남아 있는 것 같을 땐, 오늘 하루를 한꺼번에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신발주머니를 제자리에 두고, 창밖을 한 번 보고, 가만히 숨을 고르면 마음도 금방 널 따라올 거야.

오늘 아침 네 마음은 어땠니? 솔직한 네 마음을 선생님에게 살짝 들려줄래?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신문에서 만난 궁물

마음 이야기를 나눌 곳을 늘려요

교육부는 2025년 12월, 학생의 마음건강을 돕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도 늘리고, 학생의 어려움을 살펴볼 조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와 학교 밖 기관이 함께 학생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기사는 발표된 계획을 소개한다. 모든 학교에 상담인력이 이미 배치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 교육부, 정책브리핑, 2025.12.30.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마음건강 전문상담인력 확보」
공공누리 제1유형 · 어린이용 요약·재구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322>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러한 아이의 마음을 돕기 위해 교육부는 2025년 12월, 학생의 마음건강을 돕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이야기 한 편

괜찮다는 말

친구가 내 지우개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친구는 미안하다며 내일 새것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필통을 열었다. 지우개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지우개는 동생이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모서리가 닳았지만 오래 쓰고 싶었다.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했는데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다. 새 지우개가 생기면 이 마음도 달라질까. 나는 필통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 보았다.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런통로로 이리 그리 그리하리다 그리 이리문 통로로 그리하리다 : 놀리 이리 이 · 이공리
 이리통로로 이리 이리 이리하리다 통로로 이리 이리 : 놀리 문문 · 이리하리
 이리통로로 이리 이리 이리하리다 이리하리다 : 놀리 놀리 · 이리하리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내 마음에 색깔과 날씨가 있다면**

기쁨, 슬픔, 화남 같은 말로 다 담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

지금 내 마음을 물감으로 칠한다면 어떤 색깔일까? 하늘이라면 어떤 날씨일까? 안개 낀 아침일 수도, 소나기 지난 뒤의 무지개일 수도 있어.

말 대신 작은 그림이나 색칠로 표현해도 좋아. 오늘 내 마음의 모양을 자유롭게 그려 보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제부터는 공책을 돌려 봐
궁물로 궁금한 걸 물어봐!
궁물로 궁금한 걸 물어봐!
궁물로 궁금한 걸 물어봐!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동시에서 만난 궁물 호수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감을 밖에.

— 정지용, 「호수」 (1935년 발표 · 저작권산권 만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떡볶이 (을 특우 '수호' (다다)로로 를이E 로몽로 이 문이 :눌눌 이로 이 · 호공로
이로로로로 로공 로 이로로로 수 로로 로로로 로로로로로 :로로 문문 · 호로로
이로로로 로로로 로 를 로로 로로로 로로 로로 로로, 로로 이 :로로로 로로 · 호로로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모아모아, 나의 한 주 다시 펼쳐 보니

주말에 공책을 펼쳤어. 월요일에 적은 걱정은 몇 줄뿐인데, 그날은 꽤 크게 느껴졌다는 게 기억났어. 지금도 남아 있는 걱정이 있고, 어느새 작아진 걱정도 있었지.

한쪽에는 친구가 해 준 말이, 다른 쪽에는 끝내지 못한 그림이 있었어. 아무것도 적지 않은 날에도 내 하루는 있었을 거야.

지난 기록 옆에 오늘의 생각을 조금 보태고 싶어졌어. 그때와 같은 마음이어도, 달라진 마음이어도 내 이야기니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먼저 건네는 “안녕!” 한마디

안녕! 오늘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누구와 가장 먼저 눈이 마주쳤니?

친구가 먼저 아는 척해 주길 기다리다 보면 왠지 어색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쑥스러워도 용기를 내어 손을 흔들며 '안녕!' 하고 먼저 인사해 보는 거야.

선생님도 아침마다 너희에게 먼저 인사하려고 활짝 웃으며 기다린단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차가웠던 교실 공기를 난로처럼 훈훈하게 만들어 주
거든.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싶은 사람은 누구니?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신문에서 만난 궁물

더 안전하고 따뜻한 등갯길을 만들어요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를 늘리고, 좁은 골목길 통학로도 정비하여 차보다 어린이가 먼저인 길을 만드는 중이다.

우리가 매일 걷는 등굣길이 더 안전해지려면 길을 만드는 어른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2026.04.08. 「안전 통학로 조성에 210억 원 투입...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공공누리 제1유형 · 어린이용 요약·재구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720>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이야기 한 편

공기놀이 규칙

점심시간에 넷이 모여 공기놀이를 했다. 지우가 던진 공기알이 책상 틈으로 굴러떨어졌다.

“이건 다시 해야지!” 지우가 소리쳤다. 민재는 “떨어뜨렸으니까 차례가 넘어간 거야”라며 맞섰다.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규칙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재미있게 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손에 쥔 공기알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궁금한 것은 많지만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

너와 나 사이의 적당한 거리

고슴도치들은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견디지 못한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장 알맞은 거리가 있어.

혼자 있고 싶을 때의 거리, 손잡고 웃고 싶을 때의 거리. 오늘은 친구와 나 사이의 거리를 가만히 느껴 보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제부터는 **궁물**을 **궁금**하게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궁물**을 물어봐!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동시에서 만난 궁물 감자꽃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 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 보나 마나

하얀 감자

— 권태응, 「감자꽃」 (1948년 동시집 『감자꽃』 수록 · 저작권산권 만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너는궁물
너는궁물
너는궁물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모아모아, 나의 한 주
서로의 온도를 맞추며

주말이 되면 교실의 웅성거림이 조용해져. 이번 주에 만났던 수많은 말과 표정들이 하나씩 떠오르지.

고마웠던 말 한마디, 미안해서 끝내 건네지 못한 한마디, 오해해서 서운했던 눈빛.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속도와 온도로 살아가고 있어. 이번 주 나와 함께 걸어 준 사람들에게 작은 마음의 편지를 보내 본다면 누구에게 전하고 싶니?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공화민 · 불복종 · 이념 주 내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금류사냥과 농민혁명이다.
모든 것 · 문명적 · 전하지 못함 · 이념은 어떻게 물어낼 수 있을까?
배공민 · 새 생각 · 불복 · 주, 우리 배를 잡아줄 것인가? 그리고 배를 잡아줄 것인가?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내 필통 속의 작은 친구들

월요일 1교시 시작 전, 책상 위에 필통을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본 적 있
니?

길이가 몽당해진 연필, 모서리가 닳은 지우개, 뚜껑에 금이 간 자. 매일 손
에 쥐다 보니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 작은 물건들은 늘 우리 곁에서 묵묵
히 공부를 도와주고 있어.

오늘은 늘 보던 교실과 내 물건들을 탐정처럼 자세히 관찰해 보자. 매일
똑같아 보이던 하루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주 새로운 보물찾기가
된단다.

지금 내 책상 위에서 가장 고마운 물건 하나를 찾아볼래?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 생각의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 생각의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 생각의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신문에서 만난 궁물

페트병의 변신, 새 옷으로 태어나요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깨끗하게 분리배출하여 고품질 재생 원료로 만드는 사업을 펼쳐 왔다.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은 투명 페트병은 잘게 부수어져 옷이나 가방, 신발을 만드는 실로 다시 태어난다.

단순한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플라스틱 병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멋진 물건으로 돌아오는 순환의 길을 걷고 있다.

출처: 환경부, 정책브리핑, 2021.06.17.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잘하면? 옷·가방으로 재탄생!

공공누리 제1유형 · 어린이용 요약·재구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924>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공한민·물물창기·투입·폐트염를채를유하기위해리간·관해아·공음유물
 퍼물인·문문조자·페트염이웃으로바꾸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일까?
 매공인·비유각·독·유리·전·세·바·리·가·는·공·간·중·재·유·물·부·수·영·크·음·?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이야기 한 편

오래된 신발의 하품

현관문 앞에 놓인 운동화 앞코가 벌어져 있었다. 마치 피곤해서 길게 하품을 하는 입 모양 같았다.

이 신발을 신고 운동장을 얼마나 달렸던가. 술래잡기할 때 발끝으로 흙을 찼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는 새 신발을 사자고 하셨지만, 낡은 신발을 신발장에 넣기가 왠지
미안했다. 나의 모든 달리기와 함께해 준 친구였으니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

사물의 돋보기 관찰일기

창가의 유리창, 컵에 맺힌 물방울, 교실 바닥의 나무 결.

코를 가까이 대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여.

물방울 속에 거꾸로 비친 우리 반 풍경을 본 적 있니? 오늘은 가장 평범한 사물 하나를 골라 돋보기로 보듯 자세히 관찰해 보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동시에서 만난 궁물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를 심자.
담모통이 참새 눈 숨겨 두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누나가 손으로 따순 살로
꼭꼭 흙을 덮어 주면
예쁜 해바라기 싹이 트겠지.

— 정지용, 「해바라기 씨」 (1930년대 발표 · 저작권재판 만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모아모아, 나의 한 주 익숙함의 문을 열며

이번 한 주는 늘 보던 것들을 다시 보는 시간이었어.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 신발장 앞의 낡은 신발, 늘 지나치는 교문.

매일 똑같은 하루 같아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험터가 돼.

이번 주에 내가 발견한 '가장 신기했던 일상의 순간' 하나를 꼽아본다면 무엇일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궁물이나 이궁물 극궁물 이궁물극궁물 이궁물 통궁물 극궁물 :늘늘 이궁물 이 · 이궁물
이궁물극궁물 극궁물 극궁물 극궁물 이궁물 이궁물 이궁물 :늘늘 문문 · 이궁물
이궁물극궁물 이궁물 이궁물 이궁물 이궁물 이궁물 이궁물 이궁물 :늘늘 이궁물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꿈은 직업 이름 하나가 아니야

어른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참 어렵지?
의사나 선생님, 유튜버 같은 직업 이름을 딱 하나 골라야 할 것 같아서 말
이야.

하지만 선생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고 눈이 반짝이니?'

그림을 그릴 때, 친구 이야기를 들어줄 때, 블록을 맞추는 때. 미래의 내 모습은 정해진 정답이 아니란다. 아직 비어 있는 하얀 도화지에 너만의 색깔을 하나씩 채워가는 중이야.

지금 네 가슴을 가장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니?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신문에서 만난 궁물

우주로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며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넓혀가고 있다.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실패를 딛고 부품 하나하나를 우리 기술로
연구해 우주로 나아갈 길을 열었다.

불가능해 보이던 꿈도 꾸준한 연구와 호기심이 모이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누리호는 보여주었다.

출처: 우주항공청, 정책브리핑, 2025.11.27.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

공공누리 제1유형 · 어린이용 요약·재구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482>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공한데, 불복하기. 누리호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과학자들이 이 불복과 좌절
 거듭하며, 문명 전체: 사람들이 문명이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려 하는 까닭은?
 매공민·내생각 독록: 20년 뒤의 미래 기록으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인간의 문제?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이야기 한 편

타임캡슐 속의 비밀 편지

서랍 속을 정리하다가 2년 전 1학년 때 썼던 뽀뽀뽀뽀한 메모를 발견했다.
 “나는 구구단을 빨리 외우고 싶다. 키가 130센티미터가 넘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커 보였던 고민인데, 지금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
 왔다. 지금의 내 고민도 5년 뒤에 보면 이렇게 작아져 있을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궁금한 것들 ·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

아직 이름 없는 미래의 도구

스마트폰도, 우주정거장도 아주 옛날 사람들에게는 마법 같은 상상이었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나에게 꼭 있었으면 하는 도구를 상상해 보자.

친구의 속마음을 통역해 주는 안경? 꿈을 녹화해 주는 베개? 마음껏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펴 보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동시에서 만난 궁물

별똥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 날 가보려,
벼랑 밟고 가보려,
어린 날개 지치듯
해 솟는 아침에
눈에 익은 별
찾아가 보려.

— 정지용, 「별똥」 (1930년대 발표 · 저작권재판 만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모아모아, 나의 한 주 한 걸음씩 자라나는 시간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고 있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비슷해 보이지만, 새로운 생각을 하나 품었거나 모르는 단어를 하나 배웠다면 우리는 분명 자란 거야.

이번 4주차를 지나며 내 마음의 키는 얼마나 쑥 자랐을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보도블록 틈새의 작은 초록빛

오늘 아침 학교 오는 길에 땅바닥을 보며 걷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딱 딱한 보도블록 틈새에 아주 작은 풀꽃 하나가 쏙 고개를 내밀고 있더구나. 흙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인데도, 초록빛 잎을 활짝 펴고 햇볕을 쬔고 있었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이 참 많아. 바쁘게 걷다 보면 못 보고 지나치기 쉽지만, 가만히 허리를 숙여 보면 저마다의 소중한 삶이 보인단다.

오늘 너의 눈에 들어온 우리 곁의 작은 자연은 무엇이었니?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신문에서 만난 궁물

도시 속에 생명이 숨 쉬는 숲을 넓혀요

산림청과 환경부는 도시의 열기를 식히고 야생 동식물이 오갈 수 있도록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팔트와 빌딩으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새와 곤충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바람길 숲을 가꾸는 계획이다.

사람과 자연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숨 쉴 때 우리의 삶터도 더 건강하고 푸르러진다.

출처: 산림청·환경부, 정책브리핑, 2026.02.15. 「도시 생태축 복원 및 도시숲 네트워크 구축 계획」
공공누리 제1유형·어린이용 요약·재구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102>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공한만, 폭넓게 찾아 도시출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주는 이로움은 무엇일까?
모름만, 문물 진작: 권아진 줄기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 까닭은?
매공만, 내 생 각 독: 우리 화과 화단에 새 은 새들음을 초대하기 위해 화 수 있는 일은?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이야기 한 편

베란다에 찾아온 까치 손님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베란다 난간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깃털을 부르르 떨며 물방울을 털어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문 안쪽
의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까치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도 나를 관찰하고 있었을까? 비가 그치자 까치는 깍깍 울며 힘차게 날아갔다.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
바람의 소리와 냄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싣고 우리 곁을 지나가.

나뭇잎을 흔드는 사각사각 소리, 비 냄새를 머금은 흙냄새, 계절이 바뀌는
 싹싹름한 풀 향기.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자연이 들려주는 비밀 편지를 읽을 수 있어.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나름의 고수 해답을 내놓은 친구에게만은 특기 점수로만 보지 마라. 늘 늘 해답이 · 공짜
 나름의 논리도 극례를 넘지 않는 해답이 · 특기 점수로 보지 마라. 논리 · 공짜
 나름의 논리도 극례를 넘지 않는 해답이 · 특기 점수로 보지 마라. 논리 · 공짜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동시에서 만난 궁물 반딧불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으러
숲으로 가자

그믐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 윤동주, 「반딧불」 (1936년경 창작 · 저작권재판 만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모아모아, 나의 한 주 생명의 속삭임을 기억하며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계절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꽃을 피우고 잎을 떨궈.

이번 5주차 동안 우리는 작은 풀잎과 바람, 반딧불이의 숨결을 만났어.

인간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과 지구를 나누어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말이 되길 바라.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선생님, 질문 있어요!”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고 묻는 친구를 볼 때마다 선생님은 속으로 손뼉을 친다.

질문한다는 건 '내가 지금 공부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라는 멋진 신호거든. 엉뚱한 질문도 좋고, 사소한 궁금증도 참 좋아. 세상의 모든 대단한 과학과 발명도 아주 작은 물음표에서 시작되었으니까.

틀릴까 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모르는 걸 궁금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는 가장 큰 마법이란다.

오늘 네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재미있는 물음표는 무엇이니?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신문에서 만난 궁물

청소년 우주탐사 체험, 과학의 꿈을 키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주와 천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행성을 관측하고, 인공위성과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보며 과학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기회다.

별을 바라보며 품은 질문 하나가 미래의 첨단 과학기술을 이끄는 커다란 씨앗이 된다.

출처: 과기정통부·천문연, 정책브리핑, 2026.03.20. 「청소년 우주탐사 체험 및 천문과학 교육 확대 계획」

공공누리 제1유형 · 어린이용 요약·재구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205>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이야기 한 편

실패 왕 대회

과학 시간에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실험을 했다. 민우의 비행기는 던지자마자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아이들이 웃었지만 선생님은 민우에게 다가오셨다. “날개 각도를 조금 바꾸면 공기 흐름이 달라질 거야. 실패한 덕분에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네!”

민우는 날개를 살짝 접어 다시 던졌다. 비행기는 교실 천장을 가르며 가장 멀리 날아갔다.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거꾸로 생각하는 세상**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솟구친다면? 낮에 자고 밤에 학교를 간다면?

익숙한 규칙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아. 상상력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어. 오늘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상상 실험을 해 보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러면 정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동시에서 만난 궁물 오줌싸개 지도

빨랫줄에 걸린 요가
펼럭펼럭
하소연을 하네

밤새 꿈속에서
세계여행 다니다가
지도를 그렸나 봐

오늘은 어디로 갈까
별나라로 갈까

— 윤동주, 「오줌싸개 지도」 (1936년 창작 · 저작권재판 만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궁물도 이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궁물도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모아모아, 나의 한 주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한 주가 지나갔어. 처음에는 '왜 그럴까?'라는 물음표(?)였던 것들이 찬찬히 살펴보고 생각하며 '아하!' 하는 느낌표(!)로 바뀌었지.

배움이란 교과서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는 세상에 눈을 반짝이는 모든 순간이야.

이번 주에 내가 얻은 가장 빛나는 느낌표 하나를 적어 보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서로 다른 색깔이 모인 무지개 교실

우리 반을 가만히 둘러보면, 성격도, 좋아하는 음식도, 잘하는 운동도 다 제각각이지?

만약 교실의 모든 친구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만 한다면 어떨까?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금세 심심하고 지루해질 거야.

빨강, 노랑, 파랑이 모여야 눈부신 무지개가 되듯, 우리는 서로 달라서 함께 어울릴 때 더 멋진 반이 되는 거란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틀렸어!' 대신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보자.

오늘 우리 반 친구에게서 발견한 멋진 매력은 무엇이니?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통에 넣어둔 질문을 일기장에 옮겨 적어 보세요. 궁금한 게 많을수록
궁물통에 넣어둔 질문을 일기장에 옮겨 적어 보세요. 궁금한 게 많을수록
궁물통에 넣어둔 질문을 일기장에 옮겨 적어 보세요. 궁금한 게 많을수록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신문에서 만난 궁물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넓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점자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을 적극 제작하고 있다.

손끝으로 글을 읽거나 소리로 들으며 누구나 지식과 이야기의 기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장벽 없는 문화 공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세상으로 나아간다.

출처: 문체부·국립장애인도서관, 정책브리핑, 2026.01.22. 「장애인 및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보급 계획」

공공누리 제1유형 · 어린이용 요약·재구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210>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공민간·복불초기: 인간존엄이해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체로 국민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이야기 한 편

배려의 경사로

학교 현관 계단 옆에 완만한 경사로가 새로 생겼다. 휠체어를 탄 준호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경사로는 준호뿐 아니라 다리를 다친 민서, 급식 카트를 미는 조리사님,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 기사님도 편리하게 이용했다.

한 사람을 위해 만든 따뜻한 길이 알고 보니 모두를 편안하게 해 주는 모두의 길이었던 것이다.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

공정한 규칙이란 무엇일까?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같은 높이의 담장 너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에게 똑같은 높이의 상자를 주는 것이 공정할까, 아니면 키 작은 사람에게 더 높은 상자를 주는 것이 공정할까?

진정한 공평과 정의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따듯한 눈으로 헤아리는 데서 시작해.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동시에서 만난 궁물 형제별

아득한 밤하늘에
별 두 개가
나란히 나란히
빛납니다

하나는 형의 별
하나는 아우의 별

멀리멀리 떨어져도
서로를 보며
반짝반짝 반짝반짝
길을 비춥니다.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방정환, 「형제별」 (1920년대 발표 · 저작권료 (마료)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모아모아, 나의 한 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지만, 함께 손을 잡으면 험한 길도 든든하게 걸어 갈 수 있어.

이번 7주차 동안 우리는 다양성, 배려, 공평, 그리고 서로를 비춰주는 형제
별의 마음을 배웠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오늘 걸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하나란다.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이궁물고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궁물 아침편지

벌써 8주째 월요일이구나!

어느덧 이 공책을 함께 펼친 지 여덟 번째 월요일 아침이 되었네!

1주차 첫날, '질문일기가 뭐예요?' 하며 낯설어하던 너희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는 매일 스스로 질문을 찾고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구나.

그동안 쓴 일기장 앞쪽을 스르륵 넘겨보렴. 뽀뽀뽀 쓴 글씨 속에 너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담겨 있는지! 공책이 두툼해진 만큼 네 생각의 키도 훌쩍 자랐단다.

마지막 8주차도 힘차게 걸어가 보자. 끝까지 함께해 준 너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니?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신문에서 만난 궁물

우리의 소중한 기록, 세계유산으로 이어져요

국가유산청은 조상들이 남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등 찬란한 유산들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루하루의 정직한 기록이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지혜와 용기를 전해 주는 것처럼 기록은 시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작은 공책에 남긴 일기와 질문들도 미래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역사책이 될 것이다.

출처: 국가유산청, 정책브리핑, 2026.02.28. 「세계기록유산 보존 관리 및 미래 세대 전승 계획」
공공누리 제1유형 · 어린이용 요약·재구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533>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
증을
붙잡
아
봐.
여기
서
떠오
른
질문
은
왼쪽
일기
로
이어
가도
좋아.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이야기 한 편

공책의 두께만큼 자란 나

처음에는 뽀뽀하고 가벼웠던 공책이 이제는 제법 두툼해졌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조금 닳은 공책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화가 나서 꺾꺾 눌러쓴 날, 슬퍼서 눈물 자국이 남은 날, 기뻐서 느낌표를 잔뜩 그린 날.

이 얇은 종이들 사이에 나의 진짜 하루들이 커커이 쌓여 있었다. 공책이 두꺼워진 만큼 내 마음도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다.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illegible]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였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질문 사전

지금까지 8주 동안 내가 만들어낸 질문들을 모으면 멋진 '질문 사전'이 될 거야.

정답을 바로 찾지 못했더라도 괜찮아. 좋은 질문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동안 서서히 아름다운 답을 꽃피우니까.

내가 만든 최고의 질문들로 가득 찬 나만의 질문 사전에 멋진 표지를 붙여 준다면 뭐라고 적을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공민과 불복하기가 8주 동안 가장 많은 이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주 동안 가장 많은 이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주 동안 가장 많은 이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동시에서 만난 궁물

五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란 발이란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 윤동주, 「눈」 (1936년 창작 · 저작권재판 만료)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보.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보

공한만·복불 찾기: 시 속에서 곡은 추억하는 세상에 무엇이 되어 주었나?
모을만·문문 좌작: 국이 왜 가자 추공 겨루에 내리내리 Y인공이 세운 새자해나오?
배공만·새새 각 볼독: 8년간의 꿈을 이루어주자 나 나 사에게 품고자하 공이 물이

나의 질문일기

날짜: 202__년 __월 __일 (__요일) | 날씨: [맑음 · 흐림 · 비 · 눈 · 바람]

질문에서 이어져도,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도 좋아.

오늘의 마음 단무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맛이었을까?

말이나 그림도 좋아. 여러 마음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

모아모아, 나의 한 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축하해! 너는 마흔여덟 번의 아침과 저녁을 지나 8주간의 위대한 질문 완주를 해냈어.

비가 오고 귀찮은 날에도, 슬프거나 바쁜 날에도 공책을 펼쳐 생각을 남겨 준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공책의 마지막 장을 덮더라도 네 안의 호기심과 질문 열쇠는 영원히 빛날 거야. 다음 주에 만날 또 다른 세상에게 힘차게 인사해 보자. "안녕, 새로운 내 하루야!"



궁물 · 궁금한 걸 물어봐!



눈에 걸린 말, 새로 생긴 궁금증을 붙잡아 봐.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왼쪽 일기로 이어 가도 좋아.

생각이 머뭇거릴 때만 · 공책을 돌려 봐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궁물떡볶이

8주간의 공물 완주를 축하해요!

어느덧 8주, 마흔여덟 번의 아침과 저녁을 지나온 나에게 건네는 물음표입니다.

1. 8주 동안 쓴 질문 중에서 나를 가장 깊이 생각하게 만든 질문은?

2. 매일 만났던 '오늘의 마음 단무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맛은?

3. 1주차 첫날의 나와 지금 8주차의 나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

4. 공책을 덮은 뒤에도 계속 마음에 품고 가고 싶은 나만의 질문은?

내가 뽑은 최고의 궁물 질문 BEST 5

지난 8주 동안 내가 직접 만들었던 가장 빛나는 질문 5개를 뽑아 보세요.

BEST 1

BEST 2

BEST 3

BEST 4

BEST 5

궁 물 완 주 증 서

위 어린이는 8주(총 48일) 동안 스스로 궁금한 것을 묻고 자신의 마음과 하루를 성실하게 기록하는 《궁물떡볶이》여행을 훌륭하게 완주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__년 __월 __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 미 애

선생님 / 보호자 칭찬 한마디: _____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궁물떡볶이

궁금해? 물어봐!

한 주의 궁물이 모여, 8주의 커다란 내가 되었어.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



언제 어디서든 네 마음과 하루를 남겨 봐.

궁금한 걸 묻는 아이는 매일 조금씩 자라납니다.

《궁물떡볶이》 초등 8주 48일 질문일기장 (188×263mm)

- 기획·발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수록 기간: 8주 (총 48회차 좌우 펼침면 구성, 총 104쪽 정규판)
- 대상 학년: 초등학교 5학년 (3~6학년 공통 활용 가능)
- 규격 판형: 188.0 × 263.0 mm (사방 3mm 도련 포함, 완성 B5 182 × 257 mm)
- 저작권 안내: 신문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른 어린이용 요약·재구성본이며, 수록된 동시는 저작권 만료(Public Domain) 명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